

한국 사립 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

A Study on English Education in Private Kindergartens in Korea

양 옥 승**
Yang, Ok Seung
김 진 영***
Kim, Jin Young
김 현 희****
Kim, Hyun Hee
김 영 실*****
Kim, Young Si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English education in private kindergartens in Korea. Among 1700 kindergarten teachers surveyed for this research, 680 replied that their institutions provided English lessons for children.

Analyses of the data collected from these 680 teachers showed : 1) They started to teach English not because of educational considerations but because of pressure from children's parents or kindergarten principals; 2) Most of the English teachers were part-time instructors specially recruited for English lessons. Generally, English lessons were given two or three times a week, with one session lasting for about 20 minutes. A variety of teaching methods and materials were used for the lessons given to children aged three to five. Focus of the lessons was given to listening and speaking words and sentences; 3) Most of the teachers considered the scarcity of qualified English instructors as the most serious problem for providing English education in kindergartens, and they did not want to teach English themselves. They evaluated positively the performance and role of Korean part-time English instructors. The evaluations were generally poor as to native speakers serving as kindergarten English teachers.

Key Words :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어교육(English education), 유치원(kindergarten)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1월 3일

* 이 논문은 2000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와 한국어린이육영회의 일부 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E-mail : osyang@center.duksung.ac.kr

*** 송의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 전임강사

****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겸임교수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I. 서 론

정부가 1994년을 국제화, 개방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1997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정규과목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 전체를 영어로 진행함이 교육인적 자원부의 지침으로 시달되어 이를 위한 교사 연수 등이 계획되고 있다. 한 때 영어교육의 실시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던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이제는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법의 모색으로 관심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영어 사용 능력이 강조되고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의 육성'을 그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유아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게 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정보 공유의 수단으로 컴퓨터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될 것이고 컴퓨터의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80%가 영어임을 고려할 때 유아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영어의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유아기의 영어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지, 영어교육을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영어교육의 방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이중언어(bilingualism)와 제2언어 습득(second lan-

guage acquisition) 그리고 제 2 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와 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고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ackey(1970)는 이중언어를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교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김현희(1988)는 “제 2 언어로 의미 있는 발화를 할 수 있으며 그 발화는 의미론적, 구문론(통사론)적, 어휘, 음운론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중언어의 습득은 일반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모국어처럼 이루어진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제2언어 습득은 언어에 노출되는 연령에 따라 자연스럽게(early bilingualism) 이루어지며, 학교 교육이나 사설 기관을 통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상태에서(late bilingualism) 이루어지기도 한다. 장미경(1995)은 Hoffman(1991)의 이론을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상황을 늦게 시작된 이중언어(late bilingualism)이며 학교에서 실시되는 이중언어(school bilingualism)로 설명하고 있다.

영어교육에 있어서 제 2 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와 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도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는 미국이나 영국에 이민 왔거나 체류하는 사람들이 영어 환경 속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이다. 인도나 필리핀처럼 영어가 하나의 공용어로 쓰일 때도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영어(EFL)는 한국과 일본처럼 영어를 쓰지 않는 외국의 환경에서 영어를 배울 때의 영어를 의미한다(권오량, 1995). ESL과

EFL은 일반적으로 그 중 한쪽의 연구결과가 다른 쪽에도 적용되고는 있지만 그 환경, 언어 입력(input)의 양, 학습자, 교사 변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EFL 환경임에도 ESL에 적용되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영어 교육을 실시하려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ESL과 EFL을 구별짓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언어입력(input)이다. EFL 환경에서는 언어입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교사밖에 없다. 그러나 영어교사가 한국어로 설명하는 식의 수업을 하는 경우에 이 영어교사조차도 진정한 언어입력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 제2언어 습득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확실한 이론이라는 평을 받는 Krashen(1981)의 감시장치모형(monitor model)에 의하면 외국어를 습득할 때 중요한 요소가 이해 가능한 언어입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모국어와 ESL과 EFL을 구별짓는 요소는 학습자의 심리적 요소이다(안수용, 1994). ESL 학습자는 영어를 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에 대한 위협과 강한 또래 사이의 압력을 느끼지만 EFL 학습자에게는 그런 심리적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ESL 학습자는 영어를 써야 할 강한 언어의 필요를 느끼지만 EFL 환경에서는 영어를 배우고 써야만 하는 언어적 욕구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욕구는 모국어로 다 표현되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외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어린이의 외국어 학습이 어른의 외국어 학습에 비해 우수하거나 하는 문제이다. 외국어는 조기에 가르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Chomsky의 LAD이론과 Lenneberg의 결정적 시기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사춘

기 이후에는 생물학적으로 뇌의 반구 편중현상(lateralization)과 LAD 능력의 변화로 언어습득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론은 Krashen, Long 및 Scarcella(1979), Krashen (1981)과 Schumann(1975)등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다.

Krashen(1981)은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은 사춘기 이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입력, 학습자의 정의적 요소가 갖추어지면 사춘기 이후의 어린이라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어린이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Schumann (1975)도 어린이와 어른은 언어습득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및 심리적 요소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유아교육 기관들은 학부모와 사회의 요구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유아의 외국어 교육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학원 형태의 영어유치원의 난립은 정규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영어 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김은아, 1996; 박화윤·안라리·하양승, 1997; 우남희·이종희, 1994)에 의하면 반 수 이상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미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과반수 정도의 교사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유아교육의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의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는 대부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전국의 유치원 영어교육 실태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 방법만으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

의 상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란에 앞서 전국 규모의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국의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와 유아 영어교육 관련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좀더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영어교육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실시 동기, 그리고 실시기간은 어떠한가?
2. 유아영어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어떠한가?
3. 유아영어교육 실시상의 문제점에 대한 교

사의 인식은 어떠하며 연수 후 영어교육 담당의사는 어떠한가?

4. 유아영어교육 담당자는 누구이며, 이에 따른 전체 교육과정과 영어교육과의 관계 및 영어 수업에 대한 담임교사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5. 한국인 영어전담교사인 경우, 그 자격 및 채용과정, 그리고 담임교사와의 수업에 대한 협의여부는 어떠한가?
6. 외국인 영어전담교사인 경우, 자격 및 채용과정, 그리고 담임교사와의 수업에 대한 협의 여부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유아 영어교육 실시 현황을 연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이용한 연구와 면담연구를 병행하였다.

1. 연구대상

1) 질문지

본 연구는 전국의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유치원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공립유치원은 유아영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을 사립유치원으로 한정시켰다. 교육부에서 발간된 전국사립유치원 명부(1999)를 표집틀로 하여, 전국 사립 유치원 4,439개소 중 약 20%인 850개원을 비율적 집락 표집하여, 한 기관 당 2부씩 총 1700부의 질문지를 발송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1045부(회수율 62%) 중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질문지는 65.1%인 680부이었다.

〈표 1〉 연구대상 교사의 경력 및 학력, 담당학급

| 경 력 | 빈도 (%) | 학 력 | 빈도 (%) | 담 당 학 급 | 빈도 (%) |
|-----------|------------|--------|------------|------------|------------|
| 1년 미만 | 80(11.8) | 2년제 졸업 | 409(60.1) | 만 2세 이하반 | 4(.6) |
| 1년이상-3년미만 | 96(14.1) | 4년제 졸업 | 178(26.2) | 만 3세 영아반 | 74(10.9) |
| 3년이상-5년미만 | 182(26.8) | 대학원 졸업 | 81(11.9) | 만 4세 유아반 | 183(26.9) |
| 5년이상-9년 | 252(37.0) | 기타 | 12(1.8) | 만 5세 유치반 | 308(45.3) |
| | | | | 혼합 연령 및 기타 | 111(16.3) |
| 계 | 680(100.0) | 계 | 680(100.0) | 계 | 680(100.0) |

이들 유치원 교사들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반수 훨씬 넘는 수(63.8%)가 경력 3년 이상이었고 학력이 2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가 60.1%로 가장 많았다. 담당학급은 만 5세 유치반이 4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만 4세 유아반이 26.9%로 많았다.

2) 면담

현재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 중 임의로 선정한 기관 중 면접이 가능하였던 5곳의 유치원을 방문하여, 영어수업을 관찰하고 그 기관의 원장, 교사, 영어담당 교사와 면담을 하였다. 이 외에 연구자가 면접이 가능하였던 유치원 원장 10명, 담임 교사 25명, 한국인 영어전담 교사 12명, 외국인 교사 3명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립 유치원의 영어교육현황

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를 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문헌연구와 선행연구(김은아, 1996)를 참고로 하여 응답자의 신상정보와 유아영어교육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 사립 유치원 원장과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여 영어전담교사 및 전체 교육과정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항을 첨가하였다. 1차로 고안된 질문지를 40명의 유아교사들에게 예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이해가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고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여 총 44개의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문항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3. 연구절차

1) 질문지 구성 및 예비조사

사립 유치원의 영어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예비면담 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1차로 작성된 질문지로 유치원 교사 40명에

<표 2> 질문지의 문항 구성

| 영역 | 내용 | 문항수 | |
|------------|-----------------------|--|----|
| 교사의 일반적 배경 | 교사의 경력, 교사의 학력, 담당학급 | 3 | |
| 유아영어 교육실태 | 전체 | 영어교육 실시 여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실시 동기, 실시기간 | 17 |
| | | 사용되는 프로그램, 교육내용, 실시대상, 실시빈도, 1회 수업시간, 집단 형태, 활동 방법, 실시 형태, 사용되는 교구교재 | |
| | | 실시상의 문제점, 연수 후 영어 교육 담당의사 및 이유 | |
| | | 영어교육담당자, 전체교육과정과 영어교육과의 관계 | |
| 한국인 전담인 경우 | 수업에 대한 만족도 | 11 | |
| | 자격 및 채용과정 | | |
| | 수업에 대한 담임교사의 만족도 및 이유 | | |
| 외국인 전담인 경우 | 수업에 대한 담임교사의 만족도 및 이유 | 11 | |
| | 자격 및 채용 과정 | | |
| | 수업에 대한 담임교사의 만족도 및 이유 | | |

게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영어전담 교사가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에 근거하여 전체 문항 중 외국인 전담교사 관련 문항의 비율을 낮추었다. 또한 질문지의 내용 중 중복되거나 의미가 모호한 문항은 재조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재 작성하였다.

2) 본 조사

수정된 질문지를 가지고 2000년 6월부터 2000년 8월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분포 비율에 비례하여 전국의 850개원의 유치원을 표집하여 각 기관당 2부씩 총 1700부의 질문지를 우편 발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담당 학급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치원 영어 교육 실시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기에 각 기관 당 2부씩의 질문지를 우송하였다. 이를 위해 질문지의 협조문에 각 기관마다 담당 학급 유아의 연령이 다른 교사 2명이 질문지에 응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질문지의 회수는 질문지와 함께 반송용 봉투를 우송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는 방법, 그리고 기관마다 반송 협조 전화를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회수하였다.

3) 면담

질문지 조사의 분석이 마무리된 2000년 9월부터 2000년 11월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해당 유치원을 방문하여, 수업 시작 전이나 후에 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사들이 근무 중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는 다른 날을 약속하여 유치원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이들과는 직장 밖에서 만났고 3-4시간동안 면담을 하였다.

면담의 유형은 반구조적 형태로 연구자가 일정한 질문이나 쟁점을 가지고 시작하나 면담 대상자의 생각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특히 외국인교사는 현장에서 면담 한 후 E-mail을 통해 보충 면담이 이루어졌다.

4. 자료처리

본 논문에 사용된 질문지의 내용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연구 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면담 자료의 분석은 질문지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영어교육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실시 동기 및 실시 기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급 교사 680명에게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묻은 결과, 필요하다는 반응이 64.3%(437명)이었고, 보통이라는 반응이 25.4%(173명),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은 10.3%(70명)이었다.

실시하게 된 동기를 묻은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신의 필요성에 의하기보다는 주변의 요인이 동기가 되어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 자신의 인식에 의해서'라고 응답한 7.7%(48명) 보다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인 33.5%(207명), '원장님의 교육방침'인 31.6%(195명)이나 '학부모들이 영어교육을 원해서'인 26.4%(163명), '주변

<표 3>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실시기간 빈도(%)

| | 필요 없다 | 보통이다 | 필요하다 | 계 |
|-------|-----------|------------|------------|------------|
| 1년 미만 | 21(56.8) | 53(38.1) | 100(24.4) | 174(28.7) |
| 1년 이상 | 7(18.9) | 21(15.1) | 54(13.2) | 82(13.5) |
| 2년 이상 | 2(5.4) | 13(9.4) | 55(13.4) | 70(11.6) |
| 3년 이상 | 7(18.9) | 52(37.4) | 201(49.0) | 280(46.2) |
| 계 | 37(100.0) | 139(100.0) | 410(100.0) | 606(100.0) |

의 권유로'인 0.8%(5명)등이 더 높았다.

면담과정에서 교사들은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압력을 인정한다. 또한 정규 유아교육 프로그램 외에, 영어·음악·미술·체육 등 다양한 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글자 가르쳐줘요?”라고 물어왔다면 요사이는 “영어 가르쳐줘요?”라고 물어오는데, 사립의 경우는 원아모집 때문에 이러한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영어교육을 실시해온 기간을 묻은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반수 정도의 교사(46.2%)들이 영어교육을 3년 이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은 11.6%, 1년 이상은 13.5%이었다. 영어교육을 실시한지 '1년 미만'인 경우도 28.7%로 꽤 있었다.

영어교육 실시기간을 영어교육 필요 정도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보면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실시기간이 1년 미만인 교사(56.8%)에게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3년 이상인 교사(49.0%)에게서 가장 많았다.

2. 영어교육 내용 및 방법

유아영어교육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

용되는 프로그램·교육내용·실시 대상·실시 빈도·1회 수업시간·집단형태·활동 방법·사용되는 교재 및 교구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영어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과반수 이상인 65.0%(361명)이 '외부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여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사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경우인 20.2%(112명)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경우인 11.7%(65명)도 상당히 있었다.

영어교육의 내용을 중다반응으로 알아본 결과, '단어 듣기·말하기'가 가장 많았고(28.3%), 그 다음이 대화 듣고·말하기(23.5%), 문장 듣기·말하기(20.6%)로,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읽기·쓰기 활동으로는 단어 읽기·쓰기(7.9%), 문장 읽기(4.6%), 문장 쓰기(0.7%)가 소수 있었다. 알파벳 읽기·쓰기를 영어교육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9.4%이었다.

유아 영어교육 실시 대상은 80.7%(486명)이 '재원중인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12.3%(74명)이 '일정 연령의 원아만'을, 그리고 7.0%(42명)은 '원하는 원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영어교육 실시 빈도는 일주일에 2-3회 실시하는 경우가 60.2%(367명)로 가장 많았고 1회 실시하는 곳이 27.5%(168명)이었다. 일주일에 4-5회 실시하는 경우도 12.3%(75명)이 있었다.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회 수업 시간은 유아의 연령에 상관없이 '20분 정도'라는 응답이 65.4%로 가장 많았으며 30분 정도가 22.8%, 10분 정도가 11.8%이었다. 대부분 20분 정도를 하고 있으며 대상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린 유아에게는 시간을 줄이고 연령이 높은 유아에게는 시간을 늘여서 실시하고 있었다(표 4 참조).

〈표 4〉 연령에 따른 영어교육 1회 수업 시간

| | 빈도(%) | | | |
|--------|------------|------------|-----------|------------|
| | 만 5세 | 만 4세 | 만 3세이하 | 계 |
| 10분 정도 | 14(8.6) | 13(11.1) | 10(30.3) | 37(11.8) |
| 20분 정도 | 102(63.0) | 85(72.7) | 17(51.5) | 204(65.4) |
| 30분 정도 | 46(28.4) | 19(16.2) | 6(18.2) | 71(22.8) |
| 계 | 162(100.0) | 117(100.0) | 33(100.0) | 312(100.0) |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는 유치원의 '일과 중 대그룹'으로 실시하는 형태가 64.7%(30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일과 중 소그룹으로 실시한다'가 19.7%(93명), '방과후 특별 활동'으로 실시하는 곳도 8.4%(40명)가 있었다. 소수이기는 하나 '교재를 통한 가정학습'이 4.4%(21명), '일과 중 개별적으로'가 2.8%(13명)이었다.

면담에서 담임교사와 영어전담교사들은 대그룹 수업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유아들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또한 소극적인 아이들이 소외되는 문제, 유아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지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집단 구성의 영어교육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1:30의 교사대 아동 비율로 인하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유아들도 많고 적극적인 몇몇 유아에 의해 수업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영어교육 활동방법을 중다반응으로 알아본

결과, '노래와 손유희의 방법'(26.5%)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영어와 관련된 교구를 이용한 게임이나 놀이 활동'(24.0%), '이야기나누기와 같이 대화식으로'(17.7%), '동극 또는 역할 행동해보기의 방법'(13.1%) 등 다양한 자료 및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학습지를 이용하는 방법(9.1%)', '영어 동화책을 읽고 외우는 방법(3.9%)'와 같이 연습 훈련식의 방법도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영어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도 3.6%가 있었고 기타 방법이 2.1%이었다.

유아 영어교육에 사용되는 교재 교구를 중다반응으로 알아본 결과, 그림카드(24.8%)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녹음테이프(21.9%), 실물이나 모형(12.4%), 비디오테이프(8.6%), 컴퓨터프로그램(3.4%)의 입체적인 시청각 교재 교구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이외에 책(17.4%), 학습지(10.3%)와 같은 평면적인 자료가 사용되고 있었고 기타 교재가 1.2%이었다.

3. 실시상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연수 후 영어교육 담당의사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급 교사에게 실시상의 문제점을 묻은 결과, '교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52.5%(35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 자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27.2%(185명)로 많았다. 그 외에 '교육 내용의 문제'가 8.5%(58명), '교육 방법의 문제'가 6.5%(44명), '모두가 문제'에 5.3%(36명)이 응답하였다.

필요한 정도의 연수를 받은 후라면 영어교육을 담당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 본 결과, 과반수 정도인 54.6%(371명)이 연수 후라도 담당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연수 후

라면 영어교육을 담당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교사도 45.4%(309명) 있었다.

이는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것을 교사들이 모두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나 실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연수 후라도 직접 영어교육을 담당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교사들에게 그 이유를 중다반응으로 묻은 결과, 과반수 정도의 교사(53.0%)들이 '영어전담교사가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어수업까지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18.5%), '영어를 가르칠 자신이 없다'(15.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에게 영어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교육을 담당할 의사가 없는 교사들도 약간(13.4%) 있었다.

담당 의사가 없는 교사의 53.0%가 영어전담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과반수 훨씬 넘는 교사들이 영어를 독립된 교과로 여기고 전담교사가 담당해야할 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수 후라면 영어교육을 담당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에게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중다반응으로 묻은 결과, '교사 자신의 영어 실력의 한계'(39.6%), '영어교육 및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의 부족'(30.8%), '일반 교육과정과의 통합의 어려움'(15.8%)의 순으로 응답한 빈도가 많았다. 교사나 유치원 자체의 문제가 아닌 외적 요인으로, '학부모로부터의 신뢰 확보의 어려움'을 제시한 교사들도 13.8%가 있었다.

실시상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유아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묻은 결과, 92.4%(521명)가 '유아들이 영어수업을 좋아한다'고 하였고, '보통이다'가 6.7%(38명) '유아들이 영어수업을 싫어한다'가 0.9%(5명)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유아들이 영어시간

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교사들과의 면담에서 유아들이 영어시간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유아들이 영어라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교사가 다양한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가정에서 영어에 관심을 갖고 부모가 지도하거나 따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영어를 전혀 접하지 않는 아이들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 수업에서 위축된 아이들이 다른 활동에서도 상당히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려하였다.

4. 영어교육 담당자 및 이에 따른 전체 교육과정과 영어교육과의 관계

유치원의 실제 영어교육 담당자는 누구인지 묻은 결과, 한국인 영어 전담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78.3%(420명)이었다. '담임교사와 외국인 교사가 함께'하는 경우는 0.6%(3명), '외국인 영어 전담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1%(22명)로 아주 소수이었다. 각 반의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15.9%(85명)로 나타났다.

전체 교육과정과 영어교육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고 있는지 묻은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반수 훨씬 넘는 교사들이 영어를 하나의 교과목으로 따로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영어를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가르치고 있는 곳은 약간(18.4%) 있었다.

전체 교육과정과 영어교육과의 관계를 영어교육 담당자에 따라 보면,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았다. 각반 담임교사가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교과목으로 독립하여 지도하는 경우가 66.2%.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25.0%이었다. 한국인 영어전담교사가 지도

〈표 5〉 영어교육담당자에 따른 전체 교육과정과 영어교육과의 관계

빈도(%)

| | 각반 담임교사 | 한국인 영어전담교사 | 외국인 영어 전담교사 | 담임교사와 외국인 교사 | 기 타 | 계 |
|-----------------|-----------|---------------|----------------|-----------------|----------|------------|
| 하나의 교과목으로 독립 | 53(66.2) | 348(82.3) | 17(85.0) | 0(.0) | 5(83.3) | 423(79.5) |
| 교육과정과 통합 | 20(25.0) | 72(17.0) | 3(15.0) | 3(100.0) | 0(.0) | 98(18.4) |
| 기타 | 7(8.8) | 3(.7) | 0(.0) | 0(.0) | 1(16.7) | 11(2.1) |
| 계 | 80(100.0) | 423(100.0) | 20(100.0) | 3(100.0) | 6(100.0) | 532(100.0) |

하는 경우나 외국인 영어 전담교사가 지도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으로 독립하여 지도하는 경우가 각각 82.3%와 85.0%이었고 통합하여 지도하는 경우는 각각 17%와 15%이었다.

이는 각반 담임교사가 영어를 담당하는 경우, 한국인 전담 교사나 외국인 영어 전담교사가 지도하는 경우보다는 영어를 전체 유치원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지도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교육 담당자에 따른 영어수업에 대한 담임교사의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담임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 만족하는 경우가 20.0%(13명)이었고 불만족인 경우가 18.5%(12명)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61.5%(40명)은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인 전담교사의 수업에 대한 담임교사의 만족도는 과반수 정도인 56.4%(223명)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불만족하다’는 반응도 14.7%(58명)이었다. ‘보통이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28.9%(114명)가 있었다. 즉 영어 수업에 대한 담임교사의 만족도는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경우보다 한국인 전담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담임교사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유아들이 좋아한다’는 반응이 68.1%(145명)로 가장 많았고 ‘전담교사의 영어 교수

능력이 뛰어나다’는 반응도 25.8%(55명)가 되었다.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다’는 응답도 6.1%(13명)가 있었다.

면담에서 담임 교사들은 한국인 영어전담 교사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교수방법에는 다소 미숙한 면이 있으나 열의가 있고 영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그림카드와 게임 도구를 가지고 수업을 흥미롭게 이끌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외국인 영어교사를 경험했던 원장이나 교사들은 한국인 영어전담 교사들이 외국인 교사 보다 아이들을 잘 통솔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한다. 아이들과 한국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수업 상황의 위기를 잘 파악하며 대그룹 수업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유아를 통솔하지 못한다’가 44.4%(16명)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하다’는 응답이 30.5%(11명), ‘영어교육의 효과가 없다’가 16.7%(6명), ‘영어교사의 교육 방법이 담임교사의 신념과 불일치’가 5.6%(2명)이었다.

면담에서 담임교사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한국인 영어교사와 외국인 영어교사 모두가 아이들을 통솔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유아교육과의 교생이나 초년 교사들도 아이들을 20-30분간 집중시켜야 하는 대그룹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수업 내용도 너무 전달식인 경우가 많고 교수 학습 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외국인 교사가 영어 수업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22명의 담임교사들에게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은 결과, 만족하는 경우가 22.7%(5명),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68.2%(15명), 그리고 보통이다가 9.1%(2명) 있었다. 외국인 전담교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는 '유아를 통솔하지 못한다'가 46.7%(7명)', '유아들이 흥미 없어 한다'가 26.7%(4명)', '의사소통이 어렵다'가 13.3%(2명)', '교수방법이 부적절하다'가 6.7%(1명), '불성실하다'가 6.7%(1명)'이었다. 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교수능력이 뛰어나다'가 60%(3명), '유아들이 흥미 있어 한다'가 40%(2명)'로, 불만족하는 이유와 상반되었다.

이와 같이 응답자 간의 답변이 상반되는 것은, 현재 유아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전담교사의 교수능력에 있어 개인차가 상당히 있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면담을 통해서 보면 외국인 교사의 수업에 대한 담임교사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한국인 전담교사들과는 달리 열의가 부족하며 수업 준비도 대충하거나 시간을 때우는 느낌이 많이 들었으며 준비해온 자료도 유아들에게 부적절한 것이 많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아이들을 통솔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여러 가지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30명의 대그룹은 그들에게 상당히 낮은 규모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그룹의 수업을 이끌어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영어 교육을 전담하는 경우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아이들이

외국인에 익숙해지게 되며 발음 습득에 좋은 모델이 된다는 점을 들었다.

5. 한국인 영어전담교사인 경우, 그 자격 및 채용과정·담임교사와의 수업에 대한 협의 여부

1) 자격 및 채용 과정

한국인 전담교사가 영어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전담교사의 전공, 채용기준, 채용 경로, 소속, 유아교육 경험 유무에 대해 묻은 결과 다음과 같았다.

한국인 영어 전담 교사가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교사의 전공은 '영어'인 경우가 66.4%(296명)이었고 '유아교육'인 경우는 5.6%(25명)으로 아주 소수이었다. 전담교사의 전공이 불명확한 경우도 28.0%(125명) 있었다.

한국인 전담교사의 채용 기준은 '대학에서의 영어 전공 여부'가 44.0%(171명)로 가장 많았다. '특별한 채용 기준이 없이 특정 교육기관의 추천'에 의하는 경우가 20.0%(78명)이었으며, '영어전공은 아니나 영어교육 경험 여부'가 15.7%(61명)이었다. 채용 기준이 알려지지 않아 모른다는 반응도 20.3%(79명)로, 명확한 채용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한국인 전담교사의 채용 경로는 '영어교육기관을 통해서'가 43.8%(146명), '영어 프로그램 제공업체를 통해서'가 40.2%(134명)로 대부분이 외부 영어교육관련업체를 통하여 채용하고 있었다. '친지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9.1%(30명), 그리고 다른 유아교육기관의 소개로 채용하는 경우가 6.9%(23명)로 아주 소수 있었다.

한국인 영어 전담교사의 소속은 '외부기관에서 파견 나와 담당 시간만 수업'하는 경우가

68.4%(256명)로 가장 많았고 특정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섭외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프리랜서인 경우도 17.7%(66명)가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전일 근무하는 경우는 12.8%(48명), 기타가 1.1%(4명)이었다.

한국인 영어 전담 교사의 유아 교육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과반수 훨씬 넘는 교사인 65.0%(290명)들이 유아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없다는 경우도 10.6%(47명)이었으며, 모른다는 반응도 24.4%(109명)이었다.

면담에서 한국인 영어전담 교사들은 유아들을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담임 교사들이 진행하는 수업을 유심히 보거나 나름대로 경험이 쌓이면서 방법을 터득해 나가지만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나갈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한다. 특히 각 반을 돌아다니는 수업방식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파악이 어렵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수업 이상의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2) 담임교사와의 수업에 대한 협의 여부

한국인 영어전담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와 영어교사간의 수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질문한 결과, 대부분인 83.9%(324명)가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16.1%(62명)만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내용은 전반적인 교육과정 및 유아 발달과 개인차에 대한 토의가 대부분이었다.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들에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은 결과, 73.0%(214명)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므로 협의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영어교육이 전체 유아교육과정과의 연결 없이 독립된 교과로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협의의 필요성은 느끼나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22.2%(65명)이었고 기타 응답이 4.8%(14명)으로 나타났다.

6. 외국인 영어전담교사인 경우, 그 자격 및 채용과정·담임교사와의 수업에 대한 협의 여부

전체 질문지 조사 대상 중 외국인 영어 전담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2명이었다. 질문지 응답 내용 중 분석 가능한 항목과 질문지 조사 대상이 아닌 외국인 교사 3명에 대한 면담, 외국인 교사와 같이 현재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원장 및 교사들과의 면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격 및 채용 과정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외국인은 거의 대부분인 90.9%(20명)의 응답자가 영어교육기관을 통하여 채용하고 있었으며 친지를 통하는 경우가 4.5%(1명), 다른 유아교육기관의 소개로 채용한 경우가 4.5%(1명)이었다. 영어교육 담당교사의 채용기준은 영어교육 경험여부나 유아영어교육 경험여부가 대부분이었다. 외국인 전담교사는 유아 영어교육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관 내의 유아교육교사의 영어교육도 담당하는 경우가 2명이 있었다.

면담결과 외국인 교사 중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았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비자로 들어온 경우는 보수가 더 높은 성인 대상의 학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2) 담임교사와의 수업에 대한 협의 여부

외국인 전담교사가 영어수업을 담당한다고 응답한 22명 중, 담임교사와의 수업에 대한 협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31.8%(7명) 있었다. 협의가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의사

소통이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또는 '영어 시간이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등을 들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영어교육 실시 현황을 알아보았다. 나타난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으로 표집된 조사 대상 중 과반수 훨씬 넘는 교사들이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김은아, 1996; 남윤주, 1997)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나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던 송충빈등의 연구(1998)에서 88.2%로 나타났던 것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유치원 영어교육은 교육적 필요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과반수 이상의 교사들이 주변 요인, 특히 원장 및 학부모의 요구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요구는 궁극적으로 원아모집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어떤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교육비에 의지하고 있는 현 유치원의 처지에서는, 소비자인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둘째, 영어교육은 주로 채용하고 있는 모든 원아들을 대상으로 1회에 20분 정도씩 주 2-3회 정도 영어를 독립된 교과목으로 일과 중 대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양한 교수매체를 이용하여 단어·대화·문장을 듣고 말하기를, 노래·게임·놀이와 같은 비형식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습지를 이용한다거나 영어 동화를 암기하는 방법과

같이, 연습 훈련식의 방법도 사용되고 있었다. 유아 영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과반수 이상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연구(송수미, 1999; 송충빈·이대균·김숙령, 1998; 이경희·전예자, 1996)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이다.

셋째,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의 담임 교사들은 영어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로 교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는 김은아(1996)의 연구 결과와 같다. 또한 영어교육담당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스러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유아영어교육 담당자는 대부분이 한국인 전담교사(78.3%)이고 각반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약간 있었다. 외국인 전담인 경우는 4.1%로 우남희·이종희의 연구(1994) 당시의 2.4%보다는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유미·이진화의 연구(1997) 결과인 9.5%, 남윤주의 연구(1997) 결과인 13.1% 보다는 낮았다. 이는 본 연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 영어 전담교사는 대도시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이 전체 교육과정과 통합되지 못하고 하나의 교과목으로 분리하여 가르치고 있었다. 영어교육을 전체 교육과정과 통합하는 비율은, 적은 수이기는 하나, 담임교사가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영어 교육 담당자에 따른 담임교사의 만

족도는 한국인 영어전담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임교사들은 교수 방법이 다소 미숙한 면이 있으나 유아들이 좋아하고 열의가 있으며 영어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측면이 있음을 이유로, 한국인 전담교사들의 수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외국인 전담교사에 대한 담임교사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았다.

다섯째, 한국인 전담교사의 채용은 영어 전공 여부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고 있었으나 실제 한국인 전담교사의 전공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영어교사들의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선행연구(김은아, 1996; 송미경, 1996; 송수미, 1999; 우남희·이종희, 1994)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한국인 영어전담교사 중 영어 전공자는 66.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송수미, 1999; 한유미·이진화, 1997)에서 영어 전공자가 과반수를 약간 넘는다고 나타난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아교육전공자는 아주 소수여서, 유아의 독특한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되었다. 한국인 전담교사의 채용은 영어교육관련 업체를 통하여 채용되고 영어 수업만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이 영어 수업을 별도의 교과로 담임교사와의 협의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사의 경우, 거의 영어교육기관을 통하여 채용되고 있었으며 영어교육이나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거의 없었다. 주로 담임교사와의 수업에 대한 협의 없이 유아영어교육만을 담당하는데, 교수능력에 있어 개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들이 영어교육의 실시 여부를 놓고 논쟁

을 벌이는 사이 이미 과반수 이상의 유치원이 영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사설 영어학원과 학습지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해 나가고 있다. 전 국민적인 영어에 대한 공포와 조바심,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열기,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이러한 욕구를 사업적인 안목에서 읽어내고 이용하는 상술이 함께 이루어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아 영어교육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전문가들이나 교사들의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치원의 전체 교육과정과 유리되어 영어전담 강사를 중심으로 특활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유아기 영어교육의 필요성 여부와 적절한 교육 방법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세계는 국제화, 개방화의 기치 아래 교통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가까운 이웃사촌이 되어가고 있다.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은 각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에 영어 교과가 도입됨에 따라서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하여 막대한 부담 속에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유치원은 사회와 부모들의 요구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유아영어교육은 유아교육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유아 발달에의 적합성이 만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그 사회적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유아교육자들이 교육 현장에 영어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9). 전국 사립 유치원 명부.
- 권오량(1995). 아동의 외국어 학습, 한국 인간발달학회 제2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 35-55.
- 김경옥(199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영어교육 실시에 관한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 조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소희(1999). 조기 영어 교육의 실태연구 - 유치원 및 사설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아(1996). 유아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와 인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희(1998). *Sociolinguistic and syntactic aspects of code-switching in Korean-English bilingual children : A naturalistic, longitudinal stud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남윤주(1997). 유치원에서의 영어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화윤·안라리·하양승 (1997). 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와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7(2). 183-206.
- 손영희(1995). 최근 한국의 조기외국어 교육 실태와 문제점(사설학원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미경(1996). 학령 전 조기영어교사의 실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수미(1999). 농어촌지역의 조기영어교육 실태연구-충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충빈·이대균·김숙령(1998).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원장 및 교사들의 인식조사 연구. 배제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39-57.
- 안수웅(1994). EFL 환경에서의 영어조기교육, 김충배편. 초등학교 조기영어 교육론, 한국영어학회 영어교육총서 1, 215-244. 서울 : 한국문화사.
- 우남희·이종희(1994). 한국의 조기영어교육 실태조사. 한국 아동학회 춘계 학술 논문 발표집, 21-42.
- 이경희·전예자(1996). 가정과 유치원에서의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 203-230.
- 장미경(1995). 효과적인 조기 영어교육을 위한 제안- 이중언어 사용과 이중언어 교육 분석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유미·이진화(1997). 조기 영어 교육의 실태와 어머니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험논문집, 20, 325-342.
- Carroll, J. B.(197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Hoffman, C.(1991). *An Introduction to bilingualism*. N.Y. : Longman
- Krashen, S. D.(198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 Pergamon Press Ltd.
- Krashen, S. D., Long, M. H. & Scarcellar, R. C. (1979) Age, rate, and eventual attai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13, 573-582.
- Mackey, W. F. (1970). The description of bilingualism. In J. Fishman (Ed),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The Hague : Mouton.
- Schumann, J. H(1975). Affective factors and the problem of ag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Kenneth Croft(Ed.), *Readings o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